

지역공동체의 상징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

청주직지축제



축 제란 개인이나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
죽 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 또는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라고
한다. 원시시대나 고대사회에서의 축제는
종교적 요소가 주가 되고 거기에 유희적 요
소가 덧붙여졌을 것이지만, 과학문명과 이
성의 발달에 따라 종교적 색채가 줄어들고
유희적 측면이 강화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승환 충북대 교수는 이처럼 변화해 온
축제의 역사성과 역할에 대해, “제의적 성격
과 유희적 성격이 어우러지면서 오랜 동안
축제가 지속되면 역사성을 띠게 되고 역사
성은 거꾸로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
다.”고 설명한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듯이 개최
하는 축제들도 대부분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지역공동체 사회의 문화전통에 어떤 방식으
로든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역
축제가 주민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제의
적 전통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
다는 원론적 이해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
만, 전통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축제
를 통해 긍정적인 지역정체성을 강화해 나
가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주의 직지축제는 지역의
민과 관이 나뉘대로의 고민을 담아 함께 만
들어내고 있는 공동체 만들기 노력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 ‘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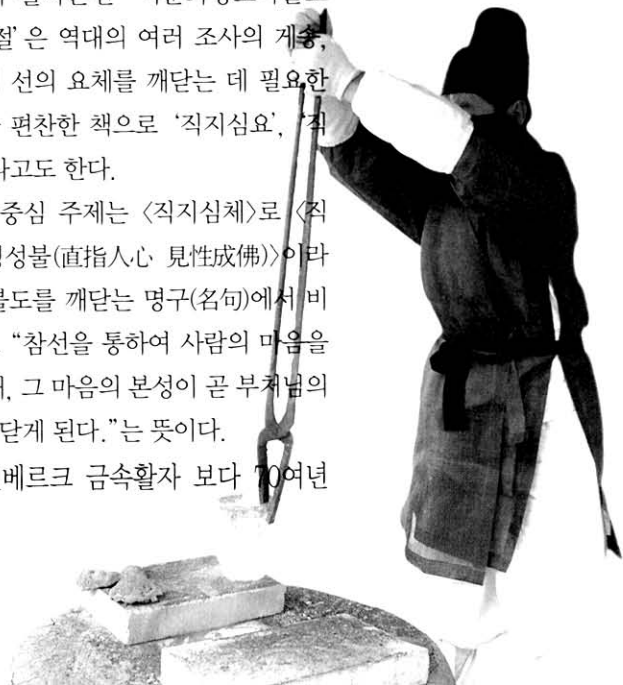
‘직지’는 200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된 데 이어 2004년 4월 유네스코에서 ‘직지
상(直指賞)’을 제정함으로써 그 위상이 세계
적으로 더욱 확고해졌다. 특히 세계기록유
산 최초의 상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유일한 상이기에 청주의 위상을 함께 높이
는 계기가 되었다.

‘직지’의 체제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은 현
재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 1책(총 38장)
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
되어 있다. 취암사에서 간행된 ‘직지’ 목판
본은 상·하권이 완전한 1책으로 국립중앙
도서관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및 영
광 불갑사에 소장되어 있어 금속활자본만으
로는 알 수 없는 체제나 내용을 목판본을 통
해서 알 수 있다.

고려 말기 삼대 선결인 백운화상이 엮은
현존 최고의 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은 역대의 여러 조사의 계승,
법어 등에서 선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편찬한 책으로 ‘직지심요’, ‘직
지’, ‘심요’라고도 한다.

‘직지’의 중심 주제는 <직지심체>로 <직
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
는 선종의 불도를 깨닫는 명구(名句)에서 비
롯된 것으로 “참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독일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보다 10여년





금속활자 주조 시범을 보고 있는 어린이들. '학습형 축제'답게 2004 청주직지축제에는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했다.



앞선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직지'의 간행에 조언한 문인은 석찬과 달담이고 시주한 사람은 비구니 묘덕이다.

'직지'는 1877년 주한 프랑스 공사로 서울에 부임했던 폴란드 드 뵐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건너갔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다. 문헌에만 전해지고 있는 고려 금속활자본 중 현존하는 유일한 책인 '직지'는 우리 민족이 금속활자를 창안하여 발전시킨 슬기로운 민족임을 실증해 준 인류문화의 유산인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소통을 주제로 한 '학습형 축제'

청주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만들어 낸 세계인쇄문화의 발상지로서, 직지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정하고 이를 경축하기 위한 행사로 2003년부터 매년 청주직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의 직지축제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직지의 거리, 청주 예술의전당, 청주 고인쇄박물관, 한국공예관 일원에서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등 총 27개의 세부행사가 시민 참여 위주로 진행되었다.

직지축제추진위원회는 2004 청주직지축제의 주제를 '소통(Communication)'으로 정했는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관계이든 막히지 않고 통하여 이어지고 교류하는 유지적인 관계를 지향하자."는 의미로 이해하여

달라고 주문한다.

세부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고려퍼레이드는 청주 흥덕사에서 탄생한 직지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와 함께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청주시민 모두가 직지의 본향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려시대에 청주와 관련된 주요한 사건과 인물 등을 주제별로 퍼포먼스로 표현하여 관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5학년은 다모여라!, 직지학습관, 직지동화구연 전국대회, 직지청소년예술상, 직지학술회의, 직지전국학생토론대회, 금속활자 재현, 직지와 판화, 유네스코 기록유산워크숍, 오페라 직지, 구텐베르크 특별전 등의 다양한 '배울거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형 축제'로서의 2004 청주직지축제의 교육적인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예술의전당 2층에 마련된 직지학습관에서는 초등학교생이 단체로 참여하여 직지의 역사와 의미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체험하고 있었다. 옛 시골마을의 교실을 재현한 방에서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생님 역할의 자원봉사자를 따라 "청주에는 금속활자 세계최초 직지 있죠. 독일보다 먼저 정보혁명 달성, 우리나라 직지가 했죠.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은 청주의 자랑 세계의 자랑 세계유산 우리의 희망"이라는 직지 로고송을 배우기도 하였다. 축제추진위원회는 행사 개최 이전부터 청주 시와 인근 초등학교에 행사 참여를 요청하는 등 교육축제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흥

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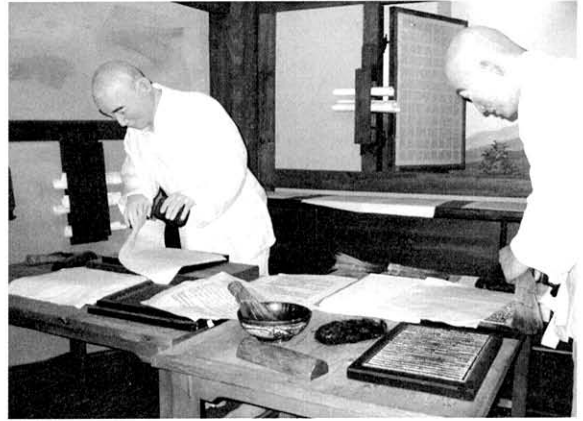
또한 옛 흥덕사 터에 세워진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개최된 구텐베르크 특별전에도 자녀들의 손을 잡고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박물관 관계자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 '직지'가 수록된 이후에 약 30% 정도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박물관에 연간 약 10여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니, 학교 교과서에 의한 관람객 유인효과를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청주의 정체성 만들기

김승환 교수는 “청주적 정체성이란 청주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지역적 자긍심을 가지며 그것이 동시에 배타적 자기중심주의가 되지 않는 인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면서, 청주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직지'와 '교육문화'라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역사적 문화자산인 '직지'를 누가 어떻게 청주를 대표하는 개방적인 문화자본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직지를 주제로 청주인이 주체가 되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며 시작한 것이 바로 청주직지축제라고 할 수 있다.

청주 시청 직지세계화추진단의 이관동 팀장은 “직지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또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가 되어야 직지의 전국화, 세계화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청주직지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바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그와 함께 '직지'라는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청주 시와 시민들의 노력에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위)과 직지 인쇄 시범(아래)

'직지'는 이미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청주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강화와 문화자본의 형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직지축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양금식〉